

光日春秋

김용택



날씨가 가을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가을은 가을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은 높고 눈이 부시게 푸르지만 합니다.

가을꽃들이 피었습니다

벌어지고, 감은 붉은 얼굴을 세상에 내뽐니다. 아산에 가보면 작은 오솔길에 사과 상수리와 도토리들이 발아래 툭툭 떨어집니다.

나와 언제 그러마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마치 지상의 모든 것들과의 굳은 약속인 양 그렇게 눈이 시리게 피어납니다. 낮은 산자락 작은 마을 어느 집에 머리가 현

이 가을에 시 한편

할머니가 키 발을 신고 낮은 슬레이트 지붕 난간에다가 호박쪄기리를 한 개 한 개 널고 있습니다. 오래 된 마을의 오래 된 저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고향 같은 굳은 약속입니다.

와 권력과 돈을 쥐고 세상을 흔드는 자들에게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It 트랙에 잡화를 신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젊은 가장의 어깨에 내리는 어머니같은 눈길일 것입니다.

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 모든 이들이 / 똑같이 소중함을 / 나는 믿습니다. // 선한 기독교도와 / 선한 이슬람교도와 / 선한 유대교도와 / 선한 무신론자들이 있음을 /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선함이 깃들어 있음을 / 나는 믿습니다. // 만일 믿지 않는다면 / 어떻

가을엔 모두가 시인입니다

게 시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 날마다 / 목마름에 슬피 우는 아이들이 있음을 / 그리고 날마다 / 싸움을 벌이는 인종차별 주의자들이 있음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 어린아이들은 피부색과 상관없이 / 서로 어울려 뛰어놀고 있음을 / 나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 그리고 부디 이와 같은 / 희망을 간직한 이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 그것이 바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며 / 동시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 진실로 말입니다. /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제공연예술제 무산 '문화수도' 맞나

제3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무산됐다. '사단법인 국제공연예술제'의 내부 갈등으로 이사장 등이 사퇴한 이후 추진 동력을 잃어 행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문화수도를 표방한 광주에서 국제예술행사가 내부 사정으로 열리지 못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는 점에서 지역 예술계와 광주시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예술계는 무엇을 했는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6억원을 지원한 광주시는 왜 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행사에 개인하기 어렵다는 광주시의 해명엔 설득력이 없다.

개인 금융부채 급증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1인당 금융부채가 1천600만원 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6월 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는 780조7천 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23조1천억원 이 늘어났다. 국민 1인당 1천60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채 증가는 가계의 채무 상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월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고물가를 감안 하면 부채 증가는 상환 능력을 떨어뜨 리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부추기게 된다. 금융 당국이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자금 회수에 나서거나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치게 되면 치명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Kisti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식

16세기 초의 베네치아는 요즈음의 파 리나 뉴욕이 그렇듯 미술의 메카였다. 당시 베네치아에는 근대 회화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티치아노, 풍부한 색채감 의 화가 지오반니 벨리니, 수세기만의 상징성으로 점철된 그림 '폭풍'을 그린 지오르조네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종에는 또 다른 비밀도 있었다. 유리와 도자기 제품들은 베네치아의 전통적인 특산물인데 이는 16세기에도 마찬가지 였다. 그런데 당시의 화가들이 유리 세 공의 기법과 재료를 정통 회화에 응용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역시 벤데콜 로리의 역할이 컸다.

16세기 베네치아 화가들의 화려한 비밀

새로운 기법이나 재료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말하자면 벤데콜로리의 상점 은 가게뿐만이 아니라 베네치아 화가들의 살롱 역할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또는 다른 유럽 국 가들이 이 같은 벤데콜로리가 없었던 것일까? 당시 대부분의 유럽 화가들은 물감을 약방에서 구해다 썼다. 벤데콜로 리처럼 종합적인 화방이 있는 도시는 베 네치아 외에는 없었다. 때문에 이탈리아 전역의 화가들이 벤데콜로리에서만 판 매하는 다양한 물감과 재료를 구하기 위 해 베네치아를 찾아왔다고 한다.

투명한 적색 레이크 안료층이 덧발라져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황화비소로 만든 특이한 오렌지색상과 아프가니스 탄에서 수입한 군청색 역시 베네치아 화 가들이 즐겨 구사한 색상들이다. 로도가 사용한 기법은 베네치아 화가 들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다. 즉, 투명 한 색상과 반투명한 색상의 유화물감을 번갈아 덧칠해서 특별한 효과를 얻는 것 이다.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여러 새로운 안료를 시험한 끝에 각각의 물감층이 스 테인드글라스처럼 아래층의 색상을 가 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색감을 내는 안료 를 찾아낼 수 있었다. 벨리니는 하늘의 푸른빛에 노란빛이 나는 옐로우색을 조 금씩 덧칠해서 미묘한 색감의 변화를 내 기도 했다. 엑스분석법과 광학현미경 사 진을 통해 화가들은 벨리니가 사용한 주황색 물감이 안티몬과 철을 포함한 실 리케이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고

김재오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5일 개막 돼 오는 11월9일까지 중외공원 비엔날 레전시관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이 외에도 임방울극악 제, 정음성극제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돼 광주의 가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은 활기 넘치는 문화 중심지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호남대 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사 업단이 오는 25일 '2008년도 한국은행 지역경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 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전략'이 라는 주제로 열려 그 의의가 크다. 문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 여나가게 될 것이다.

문화인프라와 지역발전

전라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은 유·무형의 문화자 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광주·전남 지역은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 된다.

지 선형 과제가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데 마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나 문 화관, 미술관을 건립함에 있어 하나를 지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커뮤니 케이터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 지역의 문화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의 문화적 욕 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수능 문제지 회수 말고 수험생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

올 11월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에서도 예년처럼 문제지를 회수한다고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수능이 끝나 자마자 곧바로 문제지와 정답이 공개되는데 굳이 문제지를 회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가. 교육부는 혹시 채점이 잘못 되었을 경우 답안지와 문제지에 표기한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지와 답안 지에 표기한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설사 같 다고 해도 컴퓨터 채점이 우선시되지 않 는가. 수험생들은 자신이 표기한 정답을 마르 다른 데에 옮겨 쓰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기

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후 정답 을 맞춰보고 점수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차라리 시험이 끝날 때마다 문제 지를 수험생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 라고 본다. 수년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도 좀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 의와 관료의식 때문이 아닐까. 어차피 매시간 시험만 끝나면 문제가 공 개되는 현실이라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 제지를 회수하지 말고 수험생들에게 돌려 줬으면 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등

無等鼓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기는 생산 회 중의 하나가 광어도 불리는 낚치 다. 육질이 단단하고 고단백, 저지방, 저 칼로리에 소화가 잘되는데다 마리 당 함량으로 나오는 양도 많다. 담백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도 손색이 없다. 낚치에는 이노신산, 글 루타민산과 같은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 다. 이들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양이 늘 어난다. 때문에 막 잡 은 활어보다 약간 속 상시킨 광어회가 더 깊은 맛을 낸다. '낚치같은 녀석'이 라는 말이 있다. 모양 는 불꽃없어도 옹골 있게 실속을 잘 챙기 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이다. 눈이 유난히 작 고 넓적해 볼품은 없 으나 맛이 좋은 모양새에서 유래된 말 로 추정된다. '낚치가 되도록 낚다'라는 말도 (몸이 넓적해질 때까지) 죽도록 낚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태에서 유래된 말들이 전해질 정도로 낚치는 우리와 친숙한 생선이다. 낚치 양식의 주산지는 전남이다. 특히 완도에서는 연간 1천2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농작 광어를 비롯해 육자 광어, 삼지 구 연초 광어 등 새로운 양식법을 개발해 일 본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낚치 양식 어민들은 지금 어 는 때보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사 료값은 폭등한 반면 소비는 감소해 전 년 대비 최고 40%까지 가격이 하락했 다. 완도군이 관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 던 전복을 대박상품으 로 번도시킨 여세를 몰아 낚치 소비촉진을 위한 관측활동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전국에 있는 1천여명의 명에 면장·이장과 15만 항 우, 자매결연 단체 등 을 활용한 '완도 낚치 &러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전반적인 수급 현황을 파악 해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중앙정 부 차원에서 수매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 에서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은 농어민들 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낚치 양식어민 을 돕기 위한 완도군의 관측전략이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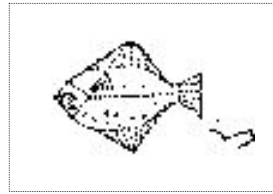


Table with Kwangju Ilbo details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prices.